

KTIX 타면 ‘광명~서울역까지’ 9분 30초

광명~수색 KTX 예비 조사 통과
고속철도 전용선 신설면 5분 줄어
2028년까지 사업비 2조4823억 원

광명시는 광명~수색 간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고속철도·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

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은 병목 현상 발생이 잦고, 운행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광명~수색 간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으로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고 선로 용량을 추가 확보하게 되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시간은 평균 14분30초에서 9분30초로 5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서울역~금천구청 구간은 선로 이용률이 높아 유지보수 시간 부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왔지만, 이번 사업으로 전용선이 신설되면 유지보수 시간 확보 등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철도 사업의 총 비용은 2조482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한편,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자원화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를 마치고 사업 규모와 사업 계획도 확정했다.

광명시 자원화수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 자원화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 및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417~15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다.

김원규 기자

남양주시의회, 의장단 원구성 배분으로 갈등

의장, 부의장 국힘의원 각각 선출돼
민주당, ‘전면 보이콧 선언’ 강력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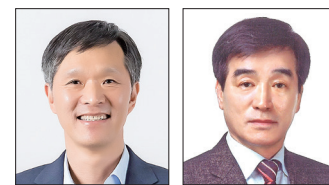
제9대 남양주시의회가 지난 1일 제2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새로 출범하는 9대 시의회는 8대 시의회보다 3명의 의원이 늘어난 총 21명이며, 7명의 재선의원과 14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이 11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의장단 원구성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간에 의장단석 배분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석이 들어난 4석 등 6석의 의장단 선출을 두고 민주당은 당초 3석을 요구하다 이후 2석을 요구했으나, 재선이 상의 의원이 많은 국민의힘이 5석을 갖고 민주당에는 운영위원장 1석만 주는 것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결국, 의장 선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 거

부속에 국민의힘 4선의 김현택(사진 왼쪽) 의원이 의장 역시 국민의힘 재선인 이상기 의원(사진 오른쪽)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전반기의회를 이끌게 될 김현택 신임 의장은 16년간의 의원생활만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제9대 의원 일동은 원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앞으로 모든 의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강력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4일 예정인 상임위원장 선출도 파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화우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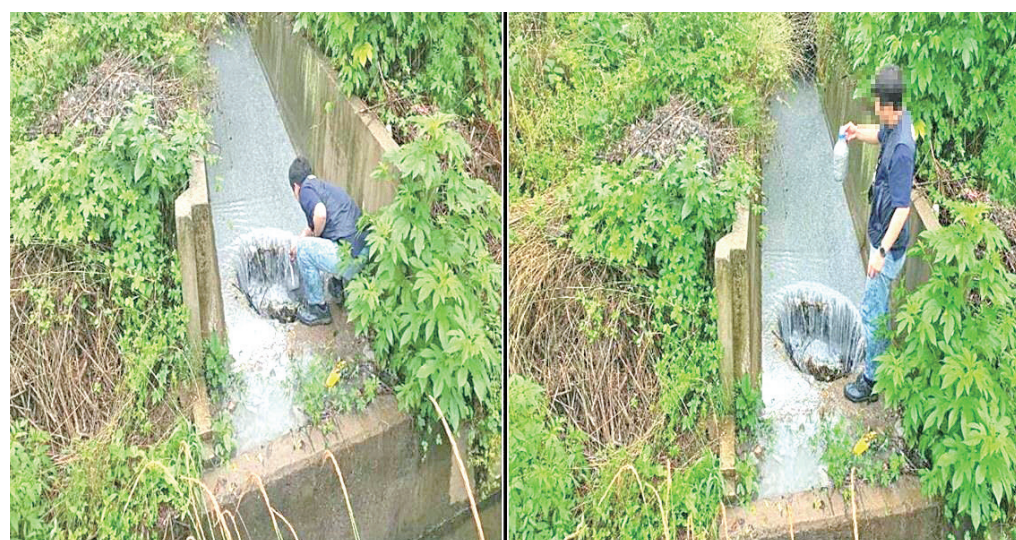
김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주로 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타 폐수 등 무단으로 흘려보내는 도 넘은 행위가 농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민원에 김포시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는 농촌과 혼재 되어 있는 지역 인근 공장 등에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을 틈타 몰래 흘려보낸 오·폐수가 농수로를 따라 수십 ha의 농경지로 방류되면서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만 무려 50여건에 이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역적인 여건상 농촌과 공장지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현천 등에서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으나 유독 장마철에 하천 수질오염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우선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기간을 오는 8월까지 운영하면서 주요 하천 인근의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김포시 환경과 한 직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폐수를 확인 조사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이번 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시 주의할 점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도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빗물에 섞어 내보내 하천을 오염하는 행위가 발견됐을 시 엄중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천용남 기자

용인시 민선8기 제2부시장은 누구?

12일부터 제2부시장 공개 모집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제2부시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제2부시장은 시민안전·도시계획·건설·주택·교통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현안을 지휘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시에서 제시한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의 요건을 갖

춰야 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전형과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검증한 후 다음달 2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정용 기자

파주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파주시는 지난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총 782대(승용 및 초소형 631대, 화물 151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 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보조금 시스템(ev.or.kr/ps)을 통해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

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판매사에 납부하고, 판매사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시 출고 가능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연식 기자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전동열차 심야운행 재개

(경부선, 경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는 7월 1일부터 코로 나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단축되었던 전동열차 심야운행을 복귀한다고 밝혔다.

복귀 대상은 일산선과 안산과천선을 제외한 코레일 모든 노선이며, 수도권광역본부 관내에는 경부선, 경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해당된다.

이번 운행계획 개편에 따라 수도권광역본부

관내에만 13개 열차가 구간 연장되고 13개 열차가 추가 편성되어 막차시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본부는 각 역에서 안내문과 변경된 시간표를 게시하고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시행하는 등 열차시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동열차 심야운행 복귀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한정되며 3호선 일산선과 4호선 안산과천선은 8월 1일자로 복귀 예정이다. 변경된 시간표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순철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